

2019년 9월 6일

## 사자와 어린 양 (1부)

아세르 인트레이터



율법서와 선지서에 걸쳐 두 가지 메시아 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난 당하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정복하는 왕입니다. 랍비들은 이 두 인물상을 요셉의 자손 메시아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개념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 감옥에서 고난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별이 맞지 않는 것은 요셉과 다윗 모두 고난당했고, 다윗과 요셉 모두 다스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비교에는 숨겨진 옳은 의미도 있는데 요셉은 이방인 중에서 다스렸고,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서 다스렸기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열방 교회의 머리로, 유다/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랍비들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와 정복하는 왕 메시아라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서로 다른 두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두 가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의로우면 메시아께서는 정복자로 오실 것이고, 사람들이 죄 많으면 메시아께서는 고난당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해법을 발견합니다. 메시아께서는 먼저 고난당하고 죽으러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먼저 고난당하고 그런 다음 다스리는 패턴은 율법서와 선지서에 걸쳐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고난당했고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과 감옥에서 고난당했고 그런 다음 애굽에서 다스렸습니다. 많은 의인들은 그냥 고난만 당하고, 다른 이들은 다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는 이 두 상은 반복됩니다.

스가랴 9:9에서는 메시아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7:13-14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의 그림은 죽음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었고, 정복하는 왕은 포효하는 사자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둘 다 이십니다.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 요한계시록 5:5-6

2부에서는 예슈아께서 사자이며 어린양이시라는 것, 지형, 그리고 그분의 특질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 언제 맞설까?

제레마야 스밀로비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맞서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그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았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